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주일낮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경건히 참석 바랍니다.
3. 오늘 오후찬양예배 시간에는 담임목사님의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례교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4. 9월 월삭새벽기도회는 9월 3일(월)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오승현 집사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최운정 권사님입니다.
6. '강북시찰 가을총회'가 9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두란노교회(서울 월계동 소재)에서 있습니다. 당회원들 모두 참석합니다.
7. 교우소식 : 차동운 집사님(김미진 성도)이 마석 청호마트 옆에 '다동이 바지락 해물 손칼국수'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축하합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날짜	9월 2일	9월 9일	9월 16일	9월 23일
예배기도(오전)	신동기 집사	오승현 집사	이준화 집사	박성대 집사
예배기도(오후)	이영선 권사	최운정 권사	신경미 권사	추석연휴
주일식사담당	헵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양떼 목장 (황희용 권사)	늬바 목장 (유숙정 권사)	로뎀 목장 (정진숙 권사)
토요일청소	둘로스 목장 (9/1)	주사랑 목장 (9/8)	갈렙·아론목장 (9/15)	에덴 목장 (9/22)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2020비전을 위해서
2. 남·여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병환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국내)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 영 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다같이
대표기도	신동기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성례전

권면	집례자
제정의 말씀	집례자
성찬참여	다같이
성찬후기도	집례자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베소서 5장 8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 영 진 목사

경배와 찬양	다같이
묵상기도	다같이
찬송	다같이
기도	이영선 권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기도	허영진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요 9:1-12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2)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기도를 향한 과녁'(47)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시 85:1-13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1)-(5)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우루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해 ‘실신세대’라고 한다. 실직자이면서 신용불량자를 줄인 말이다. 저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다. 그렇다고 저들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 바깥 말해, 실직자도 신용불량자도 아니라면 언제나 행복한 것일까? 사실 인생을 살면서 취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다. 더구나 많이 가져도 되고, 적게 가져도 무방하다. 그런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취직을 못했다고 해서,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리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런 일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인생은 고통, 절망, 실패가 아니며 허무나 부조리, 무의미한 것은 더욱 아니기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인해 살다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죄와 허물에 대해 사함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주야로 묵상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므로 건강하든 허약하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행복할 수 있다. 결국 ‘좋다’거나 ‘행복하다’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이다. 비록 세상은 그런 관점으로 행복에 대해 논하지 않을 지라도,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의 가치 기준을 찾아서 좇아야 한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시행착오로 평생 불행 속에서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담낭제거수술 후유증이 꽤나 오래 간다. 먹는 건 차지고라고도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잦다. 곁들여 매 끼니마다 챙겨먹어야 할 한 줌의 약도 부담스럽다. 어떻게 알았는지 후배인 S목사님이 약국에 들렀다가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값비싼 ‘우루사’를 사가지고 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사가지고 온 약은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이고, 내가 먹어야 할 약은 간 질환 치료제였다. ‘우루사’는 단지 한 종류일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 둘은 사가지고 온 약을 앞에 두고 한참이나 웃었다. 다시 목사님 편에 그 약은 돌려보냈지만, 먹지 않고서도 먹은 것 이상의 효과를 보았다. 예수 안에서의 사랑은 이렇듯 치유와 회복을 동반한다. 행복의 파랑새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도 힘들면서 값비싼 ‘우루사’를 기꺼이 전해 준 S목사님 섬김 덕분에 일상에 가려졌던 행복의 감각이 일깨워졌다

Written by 허영진